

#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아시아 인식과 조선 연구\*

홍종욱\*\*

## 〈차 례〉

1.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2. 세계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의 길항
3. 조선 연구와 민족통일전선의 항배
4. 〈보편=주체〉를 향한 단선적 발전단계론 확립

## [국문초록]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의 조화를 꾀했다. 백남운은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며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새로운 주체 형성의 토대로 삼고자 했다. 백남운은 민족주의자의 조선학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일종의 민족통일전선 결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이청원은 민족통일전선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중일전쟁기 내선일체의 위협 속에 조선이라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지식인 사이에는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려는 공동전선이 형성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이미 배제된 상태였지만, 그들의 연구는 다른 이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민족을 보편적 주체로 세워야 하는 과제를 떠맡았다. 세계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북한에 이르러 단선적 발전단계론의 강조로 귀착되었다.

[주제어] 조선학 운동, 민족통일전선, 세계사적 보편성, 아시아적 특수성, 임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6779).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 1.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과 초기 북한에서 활약한 역사학자 백남운(白南雲, 1894~1979), 김광진(金光鎭, 1902~1986), 이청원(李清源, 본명 李靑垣, 1914~?, 1957년 숙청)에 초점을 맞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아시아 인식과 조선 연구를 분석하겠다.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할 것인가, 혹은 아시아적 특수성에 주목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조선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둘러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사이의 입장 차이는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로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꽃피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전향이 강요된 전시 체제기를 거쳐 해방 후 북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검토하겠다.

마르크스의 아시아, 식민지 인식은 ‘자본의 문명화 작용’에 대한 믿음을 따랐다. 아시아적 생산양식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지닌 유럽 중심주의를 상징한다. 20세기 들어 식민지, 아시아의 민족운동이 거세지면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이들을 역사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에 봉착했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1859) 「서문」에서 “크게 개괄해 보면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현대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들을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순차적인 시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sup> 여기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고대적, 봉건적 생산양식에 선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하는 것인지, 혹은 고대적 또는 봉건적 생산양식의 변종인지가 논쟁의 출발점이었다. 즉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도 노예제-봉건제-자본제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이 관철되는지가 논점이었다.

소련 콤파카데미 소속인 마자르(Ludwig Madjar)는 『중국농촌경제연구』(1928)를 통해 서구 자본주의가 중국에서 미주친 것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며, 현대 중국 사회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주장했다.<sup>2)</sup> 이는 현대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 유제 탓에 새로운 생산

1) 칼 맑스,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김세균 감수,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1992, 478쪽.

양식으로 이행과 농업생산력 발전이 저지되었다는 1927년 11월 중국공산당이 결의한 농업강령 초안과 상통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28년 8월 중공 제6회 대회 결의는 중국 농촌은 사적 토지 소유가 존재하므로 이미 아시아적 생산양식 사회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1927년 견해는 반봉건 투쟁을 방기하는 트로츠키주의라고 비판했다.<sup>3)</sup> 1927년 4월 장제스(蔣介石)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공합작이 무너진 이후 스탈린(Joseph V. Stalin)과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중국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 같은 해 12월 트로츠키는 소련공산당에서 제명되었다.<sup>4)</sup> 1920년대 후반 중국에서 벌어진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에는 소련과 코민테른에서 벌어진 정치적 대립이 반영되었다.

1931년 레닌그라드에서 소련 콤파카데미 주최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고데스(M. Godes)는 마자르 일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하나의 사회구성체가 아니라 봉건제의 동양적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주류파(스탈린파)의 지지를 얻어 통설이 되었다.<sup>5)</sup> 후일 스탈린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1938)을 통해 원시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제-사회주의라는 단선적 발전단계론을 확립했다.<sup>6)</sup> 레닌그라드 토론회 이후 아시아, 식민지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이 관철된다는 원칙이 뚜렷해졌지만, 그렇다고 사료에 나타나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다.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아시아적 생산양식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주로 고대사 분야가 중심이었지만, 1930년대 내내 논쟁이 지속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아시아 인식과 조선 연구는

- 
- 2) 『編輯局の序文』(1928.7.6), マデアール(プロレタリア科學研究所中國問題研究會譯), 『中國農村經濟研究(上)』, 希望閣, 1931, 4쪽.
- 3) 鹽澤君夫·福富正實(편집부 역),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지양사, 1984, 45~48쪽; 湯淺尠男, 『東洋的專制主義』論の今日性: 選ってきたウィットフォーゲル』, 新評論, 2007, 154~161쪽.
- 4) 菊地一隆, 『中国トロツキー派の生成、動態、及びその主張: 一九二七年から三四年を中心に』, 『史林』 79-2, 1996.3., 104~105쪽.
- 5) 早川二郎, 『アジアの生産様式に就いて』, 白揚社, 1933. 湯淺尠男, 『東洋的專制主義』論の今日性』, 190~199쪽; 田中聡, 『転機としての『日本歴史教程』』, 磯前順一 & ハリー・D.ハルトゥーニアン編, 『マルクス主義という経験: 1930-40年代日本の歴史学』, 青木書店, 2008, 73쪽.
- 6) 조호연, 『스탈린 시대의 역사학』, 『인문논총』 1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12., 189~192쪽.

이러한 국제적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동향을 의식하면서 전개되었다.

## 2. 세계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의 길항

### 1)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

1933년 9월 연희(延禧)전문학교 상과 교원 백남운은 『朝鮮社會經濟史』를 펴냈다. 백남운은 도쿄상과대학(東京商科大學, 현 一橋大學)에서 배운 뒤 1925년에 연희전문에 부임한 바 있다.<sup>7)</sup> 『조선사회경제사』는 개조사(改造社) 경제학전집의 하나로 출간되어 권위를 보탬다. 동아일보는 “조선 경제사가 우리의 손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 학계의 큰 공헌임은 물론이 어니와 큰 충동을 줄 것”<sup>8)</sup>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조선 사회사 연구자로 경성제대 교원이었던 시카타 히로시(四方博)는 백남운의 책을 가리켜 “조선의 종합경제사는 이에 새로운 출발점을 부여받았다”<sup>9)</sup>고 평가했다.

백남운은 「서문」에서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의 봉건제 결여론을 비판했다. 도쿄상과대학에서 백남운을 가르친 후쿠다는 「經濟單位發展史上韓國の地位」(1905)를 통해 한국은 봉건제가 결여되고 소유권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후쿠다는 일원적 경제발전법칙을 중시했지만, 조선은 예외이자 특수라서 경제 발전과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진 문명인 일본이 정제되어 있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개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임무’라고 주장했다.<sup>10)</sup> 백남운은 이런 후쿠다에 대해 “근래 조선경제사의 영역에 착안한 최초의 학자”이지만, “조선에서 봉건제도의 존

7) 백남운에 대해서는, 방기중, 『한국 근현대 사상사 연구: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 경제 사상』, 역사비평사, 1992, 참조.

8) 『白南雲氏新著 朝鮮經濟史』, 『東亞日報』 1933.9.9.

9) 四方博, 『朝鮮』, 社會經濟史學會社編, 『社會經濟史學の發達』, 岩波書店, 1944, 385쪽.

10) 이태훈, 『일제하 백남운의 부르주아 경제사학 비판과 맑스주의 역사인식 형성과정』, 『한국사상사학』 64, 2020.4., 308~309쪽.

재를 전혀 부정한 점에서 그에 승복할 수 없”(14쪽)다고 비판했다.<sup>11)</sup>

백남운은 자신의 ‘조선 경제사의 기도(企圖)’를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①원시 씨족 공산체의 양태, ②삼국 정립 시대의 노예경제, ③삼국시대 말기 경에서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적 봉건사회의 특질, ④아시아적 봉건국가의 봉괴과정과 자본주의 맹아 형태, ⑤외래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과 국제적 관계, ⑥이데올로기 발전의 총 과정인데, 1933년의 『조선사회경제사』는 이 가운데 ①과 ②에 해당했다(14~15쪽).

백남운은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법칙인 사적 변증법에 의해 그 민족 생활의 계급적 제관계 및 사회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그 법칙성을 일반적으로 추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이 한국사에도 관철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의 이식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지구상의 사회평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19쪽). 내재적 모순의 발전을 중시하는 태도와 자본주의 ‘이식’이라는 인식은 서로 부딪히는 면이 있지만, 식민지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라는 보편성의 관철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지구상의 사회평원’은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백남운은 특수성론 비판에 힘을 기울였다. 먼저 ‘우리 선배’의 ‘특수사관’에 대해, 역사학과의 이데올로기를 수입하여 조선 문화사를 독자적인 소우주로 특수화한다고 비판했다(20쪽). ‘우리 선배’는 최남선(崔南善)과 신채호(申采浩)였다. 백남운은 “괴정복군 스스로가 자기의 특수성을 고조하게 되면 그것은 이른바 갱생의 길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노예화의 사도(邪道)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372쪽). 한편 이와 구별되는 ‘관제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등 여러 어용학자의 ‘조선 특수 사정’ 이데올로기를 들었다. 전자가 신비적·감상적인 데 반하여 후자는 독점적·정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닳은 꼴 특수성은 인류 사회 발전의 역사적 법칙의 공통성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반동적이라고 비판

11) 백남운(하일식 역), 『백남운 전집 1: 朝鮮社會經濟史』, 이론과 실천, 1994, 14쪽. 이하 같은 책에서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표시.

했다(20쪽).

백남운은 마르크스의 『임노동과 자본』에서 고대 사회·봉건 사회·부르주아 사회는 생산 관계의 총화이자 인류 역사에서 일정하고 특정한 발전 단계를 표시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법칙’에 따른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을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남운은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아시아적일지라도 사회구성의 내면적 발전법칙 그 자체는 완전히 세계사적”이라고 주장했다(22쪽).

백남운은 단군 신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신채호와 최남선에 대해서는 “단군 신화를 조선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을 독자적 신성화함으로써 동방문화에의 균림을 시도”하여 ‘특수문화사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본 학자의 ‘실증주의적 편견성’도 문제 삼았다. 단군에 대해 나가 미치요(那珂通世)는 ‘무조건적으로 부정’했고,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고구려의 국조(國祖)로서 가작(假作)된 인물’로 간주했고, 오다 쇼고(小田省吾)는 ‘묘향산의 산신’이라고 단정하고 대발견이나 한 듯 만족했다고 비판했다. 백남운은 “전자의 경우 환상적인 독자성을 거부함과 동시에, 후자의 경우 합리주의적인 가상(假象)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7쪽). 백남운은 삼국유사와 세종실록에 실린 단군 신화 전문을 번역한 뒤, 전자에서 농업공산체의 붕괴과정을, 후자에서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및 고구려의 건국과정을 읽어냈다(40쪽).

원시 씨족사회 설명에서는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과 미국 인류학자 모건(Lewis H. Morgan)의 『고대사회』(1877)를 원용했다. 가족의 발전은 혈연가족(군혼) → 푸날루아 가족 → 대우혼(對偶婚) 가족으로 설명했다. 푸날루아 가족은 모건이 40년간 아메리카 원주민 이로쿼이족(Iroquois)을 관찰하여 발견한 것이다. 백남운은 같은 문중의 사위들이나 형제의 처들이 서로 ‘동서’라 부르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푸날루아 가족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운의 화석’이라고 주장했다(64쪽). 한편 고대 중국의 푸날루아 가족 형태로서 ‘이혈족(亞血族) 결혼설’을 주창한 ‘지나(支那)의 마르크스주의 학자 귀모뤄(郭沫若)’를 소개하고 그의 책 『支那

『古代社會史論』(1931, 『中國古代社會研究』(1930)의 일본어판)을 각주에 인용했다(67쪽). 신석기 시대 한반도와 일본의 생산력 차이를 설명하면서는 와타나베 요시미치(渡部義通), 『日本母系時代の研究』(1932)를 인용했다(89쪽). 와타나베는 광말약과도 교류가 있던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였다.

『조선사회경제사』의 핵심적인 주장은 삼국시대를 노예제 사회로 보는 데 있었다. 백남운은 삼국지 마한전과 부여전에 나오는 ‘하호(下戶)’를 노예라고 간주하고, 삼한을 ‘노예국가의 맹아 형태’라고 분석했다(125·142쪽). 백남운은 원시적 부족국가인 삼한 단계에서는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종족 노예제였던 것이 삼국이 형성되면서 개인 노예제로 바뀌면서 사회경제의 기저를 이루었다고 보았다(374쪽). 백남운은 순장 제도를 노예제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파악했다.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연구에서 아프리카 체외족 사례를 빌려와 순장이 다른 노예제 사회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했다고 설명했다(143쪽). 삼국은 ‘노예제’ 국가이고 신라에 의한 통일 이후 ‘아시아적 봉건제’로 이행했다고 파악했다. 백남운은 삼국의 중앙집권제, 토지국유제, 관개정책 등을 ‘마자르 내지는 비트포겔 류의 곡해된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375쪽). 1931년 레닌그라드 토론회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비판과 상통하는 설명이었다.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는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귀모뤄의 『中國古代社會研究』(1930)와 동시대성을 띠었다.<sup>12)</sup> 귀모뤄 역시 고대 중국에 푸날루아 가족 형태에 바탕한 원시 씨족사회와 순장이 행해진 노예제 사회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백남운의 연구에 대해서는 ‘공식주의’ 특히 모건과 엥겔스의 도식적 적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귀모뤄도 같은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스스로 “본서의 성질은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속편에 해당”한다고 당당히 밝혔다.<sup>13)</sup>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조선 민족은 특수한 전통의 아들이 아니며 생물학적으로 진화해 온 일반

12) 백남운과 귀모뤄의 동시대성에 대해서는 洪宗郁, 『白南雲一普遍としての〈民族=主体〉—, 趙景達의 편,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4: 戦争と向き合つて』, 有志舎, 2014, 110~112쪽, 참조.

13) 郭沫若(藤枝丈夫譯), 『原著者 序』, 『支那古代社會論』, 内外社, 1931.

적 정상적인 인간”(23쪽)이라고 밝혔다. 귀모뤄 역시 『중국고대사회연구』에서 “중국인은 하느님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다. (중략) 우리의 요구는 인간의 관점에서 중국 사회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14)</sup> 백남운과 귀모뤄의 보편사관은 <식민지=아시아>의 인간선언이었다.

백남운은 혼돈한 조선 사학계에 투신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며 참월(僭越)”이지만, 자신이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런 모험을 감행할 ‘선형적 자격’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과 글이 형식적이고 다소 부조리하더라도, 조선어를 모르는 이들의 대저작보다 ‘체험적’이고 ‘진실한 절규’라고 자부했다(13~14쪽). 백남운은 “불란서(佛蘭西)인이 흉한(兇漢)으로 규정된 자가 안남(安南)인에게 의열사(義烈士)가 될 수 있고, 영국인이 신사라 불려도 인도인에게는 주구(走狗)로 매도될 수도 있다.”(371쪽)는 말로 일본의 식민주의를 에둘러 비판했다.

일본 공산당의 지도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사노 마나부(佐野學)에 대해서도, “일본에 전수된 조선 문화란 것은 실은 지나(支那)의 것이었고 조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日本歷史の研究』), 만약 과연 그렇다면 금일의 일본 문화를 단순히 구미로부터의 수입 문화로만 규정해 버릴 수 있을까.”(372쪽)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은 상대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었다. 백남운의 보편사관은 조선인의 주체성에 대한 강조와 하나였다.

## 2) 아시아적 특수성을 둘러싼 논쟁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는 아시아적 특수성론을 비판하고 한국 사에도 세계사적 보편성이 관철된다고 주장했다. 백남운의 책은 한국 역사에 대한 기존의 상을 크게 바꾼 탓에, 조선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사이에도 논쟁이 일어났다.

14) 郭沫若(藤枝丈夫譯), 『原著者 序』.



보성전문학교 교원 김광진은 『조선사회경제사』에 대한 서평에서 백남운의 삼국시대 노예제 사회론에 의문을 던졌다.<sup>15)</sup> 백남운 역시 『普專學會論集』 제1호(1934.3.)에 실린 김광진의 논문 「이조 말기 조선의 화폐 문제」<sup>16)</sup>를 문제 삼았다. 백남운은 김광진이 조선 시대의 ‘경제적 기구’를 “십구세기 말까지 「아세아적생산양식」으로서, 불역성(不易性)을 반복한 생산형태”로 본 데 대해, “상업자본도 발생되지 못한 구(舊)사회가 「이양선」의 침입으로 돌연히 붕괴되었다는 견해는 지나(支那)에 침입한 구라파의 자본주의가 그 「아세아적 생산양식」과 봉착하였다는 견해와 유형적(類型的) 견해이므로 도저히 찬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sup>17)</sup>

김광진은 1937년 1월 다시 백남운을 “조선사의 특수성과 그 구체적 발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치 못하였다”고 비판했다.<sup>18)</sup> 같은 해 2월에도 『보전학회논집』 제3호에 실은 논문에서, 백남운의 삼국시대 노예제 사회론을 비판하면서 광개토태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지배적이었던 것은 ‘공납제(貢納制)’였다고 주장했다.<sup>19)</sup> 백남운은 1937년 11월에 출간한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高麗の部)』 서문에서 김광진이 “「歷史教程」의 밑수입에 의해 모처럼 성장한 바의 선진적인 노예사회인 고구려의 역사발전계열을 압축함으로써, 예의 「봉건사」의 對幅을 그리고”<sup>20)</sup> 있다고 비판했다.

와타나베 요시미쓰(渡部義通)와 하야카와 지로(早川二郎) 등이 집필한 『日本歷史教程 第一冊』(1936.12.)은 일본 고대 사회에서 노예제적 존재를 추출하려고 노력했다. 백남운은 김광진이 “반도(半島) 노예사회의 생산적 「노예제」와 재외 노예인 「부곡제」 또는 「속민제」와의 상호회귀적인 연관 결합 관계의 아시아적 특수성”을 모른다고 비판했는데, 여기서 말한 ‘반도 노예사회’

15) 金洸鎭, 「新刊評 白南雲教授의 新著 『朝鮮社會經濟史』」, 『東亞日報』, 1933.9.21. 백남운과 김광진의 논쟁에 대해서는 홍종욱,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歷史學報』 232, 2016.12., 307~309쪽, 참조.

16) 金洸鎭, 「李朝末期における朝鮮の貨幣問題」, 『普專學會論集』 1, 1934.3.

17) 白南雲, 「普專學會論集에 對한 讀後感(完)」, 『東亞日報』, 1934.5.4.

18) 金洸鎭, 「朝鮮歷史學 研究의 前進을 爲하여」, 『朝鮮日報』, 1937.1.3.(新年號 其十五).

19) 金洸鎭, 「高句麗社會의 生産樣式-國家의 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 『普專學會論集』 3, 1937.2., 34쪽.

20) 白南雲, 「序文」, 『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高麗の部)-朝鮮社會經濟史(第二卷)-』, 改造社, 1937, 2쪽.

의 특징은 바로 와타나베가 주장하는 노비제와 부민제(部民制)가 ‘연관·결합’된 ‘일본형 노예제’의 그것이었다.<sup>21)</sup> 그럼에도 백남운이 『歷史敎程』을 ‘밀수입’해 노예제를 부정한다고 김광진을 비판한 것은, 하야카와 지로의 공납제론의 영향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야카와가 『日本歷史敎程 第一冊』에 참여한 것을 놓고 자설을 수정하여 노예제론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실제 서술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뚜렷했다. 하야카와는 『日本歷史敎程 第二冊』(1937.6.)에는 참여하지 않았다.<sup>22)</sup>

김광진은 1928년에 백남운과 같은 도쿄상과대학을 졸업한 뒤, 경성제대 조수를 거쳐 1932년에 보성전문학교에 부임했다. 식민지 조선은 물론 초기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주도하게 되는 김광진의 연구가 첫선을 보인 것은 바로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에 대한 서평이었다. 백남운과 김광진의 논쟁은 노예제 사회론,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자본주의 맹이론 등 해방 후 남북한 학계로 이어지는 역사학의 주요 쟁점을 포함했다. 어찌 보면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가 촉발한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남운과 김광진은 서로 다른 역사상을 그렸지만, 두 사람은 식민지 현실을 딛고 조선인의 손으로 된 학문을 세우기 위해 함께 애썼다. 두 사람의 논쟁에서 보이듯 난해한 역사학 논쟁이 전문 학술지가 아닌 신문 지상에서 벌어진 것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특징이었다.<sup>23)</sup> 대학이나 전문학교가 조선인 중심의 아카데미즘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인의 지식 활동은 신문, 잡지 등 미디어에 크게 의존하였다.<sup>24)</sup> 1933년 6월에 ‘시내 전문학교 각 신문사 기타의 방면’ 사람이 모여 창립한 ‘朝鮮經濟學會’에서 백남운과 김광

21) 홍종욱,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는 백남운이 와타나베 요시미쓰의 ‘일본 노예제론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했는데(309쪽) 잘못된 해석이었다.

22) 田中聡, 「転機としての『日本歴史敎程』」, 63~80쪽.

23) ‘식민지 아카데미즘’에 대해서는 홍종욱,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298~301쪽, 참조.

24) 한기형은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어 매체는 조선인을 위한 지식과 정보, 학술담론의 거의 유일한 공급자였다”고 분석하고 ‘미디어 아카데미아’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기형, 「배제된 전통론과 조선인식의 당대성: 『개벽』과 1920년대 식민지 민간학술의 일단」, 『상허학보』 36, 2012.10., 310~311쪽.

진은 각각 대표 간사와 재무 간사를 맡았다. 조선경제학회는 『학술부대의 참모본영』의 하나로서 기대를 모았다.<sup>25)</sup> 백남운과 김광진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현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을 잘 보여준다.

식민지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아시아 연구와 조선 인식을 살필 때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이청원이다.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청원은 1934년에 검거되었다가 풀려난 뒤 역사학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 글은 역시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에 대한 서평이었다. 이청원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봉건제로 보고 원시공산제→노예제(삼국시대)→봉건제=아시아적 생산양식(통일신라~이조)이라는 시대구분을 제시했는데, 백남운의 역사상과 동일했다. 또한, 사노 마나부의 타율성론, 정체성론적 한국사 인식에 대한 백남운의 비판을 지지했다.<sup>26)</sup>

이청원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독자적인 사회형태가 아니라 ‘봉건제도의 동양적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야카와 지로(早川二郎), 모리타니 가쓰미(森谷克己), 아이카와 하루키(相川春喜),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에 대해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하나의 사회구성체로 본다는 점에서 사적 유물론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sup>27)</sup> 이청원은 마자르 학파를 ‘트로츠키주의적 편견’을 가졌다고 비판하고, 그 ‘정치적 결론’은 “동양에는 봉건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당면한 정치적 과정은 이른바 시민적인 그것이 아니라 노동자적인 그것이다”가 될 거라고 지적했다.<sup>28)</sup> 중국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 반(反)봉건 과제를 경시하는 트로츠키주의라고 비판 받은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청원은 한국사에서 ‘내재적 모순의 발전’을 중시했다. 19세기 말까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존속했다는 김광진의 이론을 비판하고, ‘내재적 모순의

25) 『朝鮮經濟學會 創立, 유지가 명월관에 회합하여 昨日에 創立總會 開催』, 『東亞日報』, 1933.6.10.; 『學術部隊의 參謀本營』, 『東亞日報』, 1935.1.1(新年號付録 其七).

26) 李清源, 『『朝鮮社會經濟史』를 읽다』, 『唯物論研究』 26, 1934.12., 참조. 이청원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洪淳權, 『193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 『東亞論叢』 31, 1994.2.; 広瀬貞三, 『李清源의 政治活動と朝鮮史研究』,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 7, 2004.3.; 박형진,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 『역사문제연구』 38, 2017.10, 참조.

27) 李清源, 『아시아의 生産樣式と朝鮮封建社會史』, 『唯物論研究』 30, 1935.4., 참조.

28) 李清源, 『亞細亞의 生産樣式에 關하여』, 『新東亞』, 1935.9., 52·56쪽.

발전'에 따라 조선 중기부터 봉건제 즉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서 제한적이거나 '매뉴팩처'가 존재한 점을 들고, "상공업의 지방화, 보편화는 봉건제도의 붕괴와 자본주의 발생의 역사적 사회적인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sup>29)</sup> 고대 사회에 대해서도 금속 사용은 중국에서 전해졌지만, "어디까지나 조선 원시 사회 생산력의 내적 필연에 바탕한 발전 그 자체여서, 외부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sup>30)</sup> 또한, 모리타니 가쓰미의 봉건제 결여론에 대해 후쿠다 도쿠조의 "낮은 교리를 노예적으로 복사했다"고 비판했다.<sup>31)</sup>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던 이청원은 1936년 들어 아시아적 정체성론으로 전환한다. 먼저 봉건제 붕괴의 내재적 요인으로서 주목하던 상인자본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 이청원은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이 양반과 직접 결부되어, 박해를 받기는커녕 법규적 보호를 받았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봤다.<sup>32)</sup> 이청원은 1936년 4월 『朝鮮社會史讀本』을 펴냈는데, 원시공산제→노예제(삼국시대~고려)→봉건제(이조)라는 새로운 시대구분을 제시했다.<sup>33)</sup> 이 책의 특징은 고려까지를 노예제 사회로 보고,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대한 비판 없이 한국사를 정체성론적으로 이해한 데 있었다.

이청원은 1937년에 『조선사회사독본』에 근대사 부분을 추가하여 『조선역사독본』을 펴냈다. 여기서는 "이양선 출몰 이전 아직 자본가적 생산양식을 볼 수 없었던 우리 조선 사회는 한번 외국 자본주의의 강요적 개국에 부딪히자마자 그 봉건적 구성은 갑자기 취약하게도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폈다.<sup>34)</sup> 백남운과 이청원 자신이 비판해 마지않던 김광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바탕한 정체성론과 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이청원은 1934년 말의 서평에서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를 높게 평가했지만, 1937년 3월에

29)李清源, 『朝鮮封建社會史(二)』, 『唯物論研究』 31, 1935.5., 125쪽.

30)李清源, 『朝鮮原始氏族共產體研究』, 『東亞』 8-7, 1935.7., 113쪽.

31)李清源, 『昨年中 日本學界에 나타난 朝鮮에 關한 論著에 對하여(-)(二)(三)(完)』, 『東亞日報』, 1936.1.1~6.

32)李清源, 『朝鮮農業의 生産規模(-)(二)(三)』, 『批判』, 1936.4. · 1936.6. · 1937.2.

33)李清源, 『朝鮮社會史讀本』, 白揚社, 1936.

34)李清源, 『朝鮮歷史讀本』, 白揚社, 1937, 311쪽.

는 “전형적인 로마 희랍적인 노예사회를 그대로 조선의 역사 발전 행정에 적합시켰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구출할 수 없는 결점은 공식주의”라고 비판했다.<sup>35)</sup> 백남운 역시 이청원의 고려 노예제론을 ‘소아병적 회화술(戲畫術)’이라고 비판했다.<sup>36)</sup>

이청원의 방향 전환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청원은 1934년 12월 기소유보 처분을 받은 후 실천 운동에서 물러나 유물론연구회, 조선고대사연구회 등에 관제했다.<sup>37)</sup> 이청원의 역사학 논문은 『唯物論研究』 등 일본 좌파 학술지에 실렸다. 이청원은 『朝鮮社會史讀本』(1936)의 서문에서 “여러 명의 공동연구 성과도 반영하여 고심을 거듭했으므로 충분히 계몽적 의의를 지닌다”면서 “본서 출판을 위해 직접 간접으로 많은 조력을 받은 黒田, 李北滿 및 戸坂潤, 朴容七 등 제씨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도사카 준(戸坂潤)은 당대 일본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유물론연구회의 중심 인물이었다. 도사카는 유물론연구회 활동의 하나로서 이청원의 논문 발표를 든 바 있다.<sup>38)</sup> 박용칠은 메이지대학에 재학 중이던 재동경 조선인 유학생 운동의 중심적 인물이었다.<sup>39)</sup>

‘黒田’는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역사학자인 구로다 겐지(黒田善次)를 가리킨다. 구로다 겐지는 사쿠 다쓰오(佐久達雄)라는 필명으로 『日本古代社會史』, 『東洋古代社會史』(모두 白揚社, 1934)를 펴냈다. 제일 조선인 문화운동의 중심 인물로서 이청원을 유물론연구회로 이끈 고리로 판단되는 이북만 역시 『조선에서 토지소유형태의 변천』 등의 논문을 일본 좌파 역사학의 아성인 『歴史科學』에 세 차례나 게재한 사회경제사 연구자였다.<sup>40)</sup> 구로다와 이북만의 역

35) 李清源, 「『朝鮮의 일』의 現代的 考察」, 『批判』 5-3, 1937.3., 78쪽.

36) 白南雲, 「序文」,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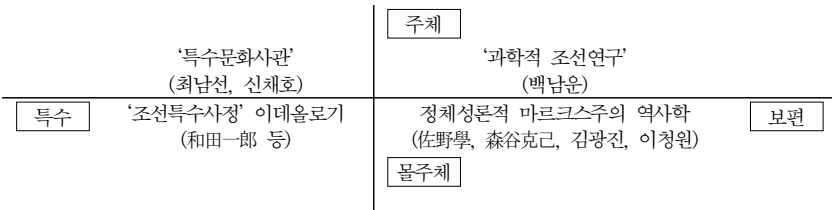
37) 「(十六)李青垣事平昌秀吉の場合」, 『思想研究資料 特輯 第九十五号 左翼前歴者の轉向問題に就て』, 司法省刑事局, 1943.8.(『社會問題資料叢書 第1輯』, 1972), 196쪽.

38) 『唯物論研究會關係者手記(二)(戸坂潤)』, 『極秘 思想資料パンフレット特輯 第一五號』(1940年6月刊)(奥平康弘 編, 『昭和統制史資料 第十三卷 左翼・文化運動篇①』, 生活社, 1980).

39) 内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状況』(1938)(朴慶植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四卷』, 三一書房, 1976, 95~98쪽); 広瀬貞三, 「李清源の政治活動と朝鮮史研究」, 참조.

40) 李北滿, 「朝鮮に於ける土地所有形態の変遷」, 『歴史科学』 1-4, 1932; 「日清戦争論」, 『歴史科学』 2-4, 1933; 林田朝人, 「李朝末葉の經濟状態に関する若干の考察: 特に資本制生産様式への転化の基本的な前提条件の欠如に就いて」, 『歴史科学』 5-12, 1936.

사학은 아시아적 정체성에 주목했다. 이밖에도 유물론연구회에는 아이카와 하루키(相川春喜), 하야카와 지로(早川二郎) 등 일본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서구 사회와 다른 아시아 사회의 특수성, 정체성에 주목하는 강좌와 역사학자들이었다. 당초 이청원은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에 관심을 가졌지만, 유물론연구회 등에서 일본 학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국사에 대한 정체성론적 인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1930년대 백남운의 역사인식

1930년대 백남운의 역사 인식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보편-특수, 주체-몰주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하는 사분면을 상정한다면, 백남운은 자신을 ‘보편=주체’의 자리에 놓고 특수문화사관과 정체성론적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각각 특수와 몰주체라고 비판한 셈이다.<sup>41)</sup>

보편 대 특수가 단순히 사회주의 대 민족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김용섭은 식민지기 한국인의 역사학을 민족주의 역사학, 실증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으로 나누어 설명했다.<sup>42)</sup> 다만 백남운의 경우는 같은 민족주의라고 해도 신채호, 최남선은 엄격하게 비판했지만, 1930년대 중반 정약용 기념사업을 함께 벌인 안재홍(安在鴻), 정인보(鄭寅普)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오히려 『조선사회경제사』(1933) 서문에서 “고문헌 수집에서는 畏友 정인보 교수의 시사에 힘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15쪽). 사회경제사학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가리키는데, 백남운은 같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라

41) 洪宗郁, 『白南雲—普遍としての〈民族=主体〉—』, 109쪽의 그림을 수정, 보완했다.

42)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1966.8., 참조.

도 몰주체적인 정체성론과 자신의 역사학을 구별했다. 백남운은 조선인의 실증사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인의 실증사학은 1934년 진단학회 창립을 계기로 막 형성되던 참이었다.

『조선사회경제사』(1933) 단계에서는 두 가지 특수성론 즉 ‘특수문화사관’과 ‘조선 특수사정 이데올로기’가 주된 논과 대상이었다. 보편과 특수 대립이었다.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는 『조선사회경제사』에 대해 같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부터 공식주의 혹은 도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백남운과 정체성론적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대립이 부각되었다. 물론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도 사노 마나부의 식민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보편=몰주체’는 일원적 경제발전법칙을 중시하면서도 한국은 예외이자 특수로 보았던 후쿠다 도쿠조의 자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주체-몰주체의 대립은 1930년대 중반에 백남운이 조선학 운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조선이라는 주체를 강조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한편, 1930년대 중반 조선학 운동에 참가하는 동시에 김광진, 이청원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백남운의 역사 인식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1937년 1월에 행한 인터뷰에서 백남운은 ‘후진(後進)에게 들려줄 연학(研學) 오훈(五訓)’의 하나로서 “조선 특수사정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미리 재단해서는 안 되죠.”라고 언급했다.<sup>43)</sup> 백남운은 삼국시대까지를 다룬 『朝鮮社會經濟史』에 이어 고려시대를 다룬 『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高麗の部)―朝鮮社會經濟史(第二卷)―』을 1937년에 출간했다. 이 책 서문에서는 “노예 소유자적 사회구성의 존재를 말살”하는 모리타니 가쓰미(森谷克己), 그리고 김광진, 이청원 등의 연구를 비판하고, 삼국=노예제, 고려=봉건제라는 자질을 반복했다. 다만 『조선사회경제사』(1933) 이후 자신의 연구에 쏟아진 ‘공식주의’라는 지적을 의식한 서술이 눈에 띈다. 같은 서문에서는 “아시아적 정체성으로서의 봉건적 유제의 강인성”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공통성의 반면에는 다종다양한 특수적인 역사적 모반(母斑)이 잔존

43) 『經濟朝鮮의 立體的 探究, 朝鮮社會經濟史 著者 白南雲氏』, 『朝鮮日報』, 1937.1.1.

하고 있는 한 역사운동의 실천과정도 공식주의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sup>44)</sup>

노예제에 대해서도 ‘반도 노예사회’의 ‘아시아적 특수성’을 언급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적 노예제와 부곡제 혹은 속민제의 연관, 결합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와타나베 요시미쓰의 ‘일본형 노예제’와 유사했다. 1933년 단계에서 그렸던 그리스·로마적인 노예제가 아니라, 아시아적 특수성이 가미된 노예제를 상정한 것이다. 역사 인식의 변화는 1938년 체포 후 압수된 연희전문학교 강의록에서도 확인된다. 『東洋經濟史』 강의록(1934~38)을 보면, ‘지나(支那) 역사’에 ‘아시아적 생산양식 단계’를 설정한 뒤 그로부터 ‘아시아적 봉건경제’로 직접 이행했는지 아니면 ‘아시아적 노예 경제’를 거쳤는지를 논점으로 제시했다.<sup>45)</sup> 더욱이 어느 쪽이든 “촌락공동체가 오랜 생명을 유지”했다고 파악했는데, 이는 아시아적 특수성의 잔존을 강조하는 하야카와 지로의 역사상과 통하는 것이었다.<sup>46)</sup>

1930년대 백남운의 특수성론 비판은 민족주의자의 특수문화 사관과 정체성론적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양쪽을 향한 것이었다. 거꾸로 1930년대 중반 이후 백남운이 조선적 특수성, 아시아적 특수성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민족주의 역사학 혹은 정체성론적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 3. 조선 연구와 민족통일전선의 항배

#### 1) 조선 연구와 사회주의자의 엇갈린 태도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는 조선 연구의 봄이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44) 白南雲, 「序文」,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1937.

45) 『東洋經濟史』 강의록(1934.4.~1938.3.), 京城地方法院檢事局, 『刑事判決原本』 제6책(방기중, 『한국 근현대 사상사 연구』, 175쪽에서 재인용).

46) 田中聡, 「転機としての『日本歴史教程』」, 70~71쪽.



안재홍(安在鴻), 정인보(鄭寅普) 등의 민족주의자가 주도한 조선학 운동이 있었다. 1931년 5월, 신간회 해소 소식이 연일 신문 지면을 채우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충남 이산의 이순신 묘소를 보전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개시했다. 5월 23일에는 윤치호(尹致昊)를 위원장으로 송진우(宋鎭禹), 안재홍, 조만식(曹晩植), 김병로(金炳魯), 한용운(韓龍雲), 정인보 등이 참가한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창립되었다.<sup>47)</sup> 보존회는 위토 저당권 해제, 이산 현충사 증건, 한산도 제승당(制勝堂) 증건 등을 추진했다.<sup>48)</sup> 동아일보는 1932년 5월 부터 평안남도 강동군의 단군릉 수축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7월에 시작한 기획연재 『檀君聖蹟巡禮』는 단군에서 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맥을 서술했는데, 이는 신채호가 『讀史新論』에서 보인 부여족 중심의 역사 인식과 통하는 것이었다.<sup>49)</sup>

1934년에는 정약용을 기리는 다산 서세(逝世) 99주년 기념사업이 열렸다. 9월에 서울 YMCA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文一平), 현상윤(玄相允)이 강사로 나섰다.<sup>50)</sup> 10월에는 ‘新朝鮮社’에서 『與猶堂全書』 제1집 제1책이 나왔다. 여유당전서 발간에는 안재홍과 정인보가 책임 교열을 담당하며 중심적 역할을 했다.<sup>51)</sup> 이순신, 단군, 다산 정약용 등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난 ‘조선을 알자’<sup>52)</sup>는 욕구와 실천은 조선학 운동이라고 불렸다.

1935년 7월 동아일보는 ‘다산 선생의 사상 학문에 대한 조예가 남달리 깊은 사계의 권위’ 정인보, 현상윤, 백남운이 강사로 나서는 강연회를 예고하면서, 세 사람의 글로 ‘정다산 서세 백년 기념’ 지면을 꾸렸다.<sup>53)</sup> 민족주의자가 주도하는 조선학 운동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백남운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같은 해 8월 『新朝鮮』의 다산 특집에도 정인보, 안재홍, 백낙준(白樂

47) 『各方面의 有志會合 遺跡保存會創立, 蘇生된 忠武公 崇拜熱』, 『東亞日報』 1931.5.25.

48)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321쪽.

49) 『檀君聖蹟巡禮』, 『東亞日報』 1932.7.9. 등;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327쪽.

50) 『朝鮮學界의 至寶 丁茶山 記念講演』, 『朝鮮日報』 1934.9.4.; 『丁茶山 記念講演 今夜 基青會館서』, 『朝鮮日報』 1934.9.9.

51)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 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민족문화연구』 55, 2014.8., 361쪽.

52) 『(社) 朝鮮을 알자, 自己發見의 機緣』, 『東亞日報』 1933.1.14.

53) 『丁茶山逝世百年記念』, 『東亞日報』 1935.7.16.

濬) 등과 함께 백남운이 「정다산 백년제의 역사적 의의」라는 글을 썼다. 여기서 안재홍은 정약용을 ‘근세 국민주의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특히 다산의 토지개혁론을 ‘일종의 국가적인 사회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sup>54)</sup> 백남운은 정약용을 ‘근세적 자유주의의 일 선구자’로 규정했다.<sup>55)</sup>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조선학 운동을 벌인 셈이다. 경성제대 출신으로 후일 경성 콤포그룹에 가담하게 되는 김태준(金台俊)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전 ‘조선적’이라고 하면 그냥 거절하고 조선학 연구는 현실 도피의 반동적 현상이라고 쉽게 버리던 것에 비해 격세지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에 대해 “적당한 학술계에 커다란 충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sup>56)</sup> 김태준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아시아적 봉건제라고 파악한 점에서 백남운과 같았다. 또한, 내부 세력의 성장과 외부 자본주의의 압력으로 봉건제 사회가 동요했다고 내재적 발전과 외부의 영향을 균형 있게 포착한 점도, 근대의 맹아와 이식 자본주의를 함께 고려하는 백남운의 역사상을 떠올리게 한다.<sup>57)</sup>

김태준은 조선일보에 1933년 10월에서 이듬해 3월에 걸쳐 ‘조선가요개설’을 시조, 별곡, 가사, 민요 등으로 나누어 70회 이상 연재했다.<sup>58)</sup> 스스로 1930년대 초반 조선 연구열의 주인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태준은 1935년 7월 조선일보 ‘다산 선생 백년제 특집’에도 이훈구(李勳求), 조헌영(趙憲泳), 문일평과 나란히 「문화건설상으로 본 정다산 선생의 업적(상)」이라는 글을 실었다.<sup>59)</sup>

한편, 같은 조선일보에 7월 13일과 14일 「단군전설의 검토 - 신화와 민족신」을 실었는데, 7월 16일 해당 연재를 ‘사(社)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한다는

54) 安在鴻, 「現代思想의 先驅者로서의 茶山先生의 地位」, 『新朝鮮』 12, 1935.8., 29쪽.

55) 白南雲, 「丁茶山百年祭의 歷史的意義」, 『新朝鮮』 12, 1935.8.(하일식 편, 『백남운 전집 4: 彙編』, 이론과 실천, 1991, 120쪽).

56) 金台俊, 「朝鮮文學上의 復古思想檢討, 古典文學과 文學의 歷史性, 古典探究의 意義」, 『朝鮮』研究熱은 어데서?(-)(二), 『朝鮮日報』, 1935.1.26. · 27.

57) 趙炯烈, 「1930년대 조선 ‘역사과학’ 계열의 보편특수성 인식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수용 양상」, 『전북사학』 49, 2016.10., 228쪽.

58) 金台俊, 「朝鮮歌謠概說, 歌謠와 朝鮮文學(一)」, 『朝鮮日報』 1933.10.20. 등.

59) 金台俊, 「文化建設上으로 본 丁茶山先生의 業績(上)」, 『朝鮮日報』 1935.7.16.

‘謹告’가 실렸다. 이 글은 신채호와 최남선,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 그리고 백남운의 단군 해석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는데, 신채호와 최남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려는 시점에 게재가 거부된 것으로 추측된다.<sup>60)</sup> 김태준은 자신의 글을 거부한 조선일보의 처사를 ‘회고적, 보수적, 민족개량주의적 무정견’으로 비판했다.<sup>61)</sup> 이후 김태준은 7월에서 8월에 걸쳐 조선중앙일보에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이라는 글을 총 10회 연재했다.<sup>62)</sup> 김태준의 조선 연구는 민족주의자들의 조선학 운동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그밖에도 신남철(申南澈), 박치우(朴致祐) 등 적지 않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조선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sup>63)</sup>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강조는 1930년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sup>64)</sup> 소련에서는 10월 혁명 이래 러시아 민족주의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1930년대 들어 러시아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났다. 1934년 3월 스탈린은 현재의 교과서가 ‘러시아사’를 ‘혁명운동의 역사’로 대체하여 국가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sup>65)</sup> 1934년 고리키(Maxim Gorky)는 새 소련 문학에서 민속의 활용을 촉구했다. 1936년 이후 사실상 모든 소련 대중문화가 ‘민속화’(folklorized) 되었다.<sup>66)</sup> 진간기 유럽을 통틀어 정치적 지도자들은 민속에 호소하고 전통을 창조함으로써 공통의 유산 아래 민중을 하나로 묶어내고자 했다.<sup>67)</sup>

60) 조형열,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학술문화기관 구상과 “과학적(科學的) 조선학(朝鮮學)” 수립론』, 『역사학연구』 61, 2016.2., 132쪽.

61) 金台俊, 『史觀의 批判, 史學研究의 回顧, 展望, 批判(一)』, 『朝鮮中央日報』 1936.1.1.

62) 天台山人, 『眞正한 丁茶山研究의 路(一)-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의 見解를 批判함』, 『朝鮮中央日報』 1935.7.25. 등.

63) 마르크스주의자가 ‘조선의 과거’에 관한 논의에 참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입계들: 식민지 조선 담론장에서의 전통·세계·주체』, 푸른역사, 2009 참조.

64) 소련, 유럽, 코민테른의 민족에 대한 강조는 홍종욱, 『반파시즘 인민전선론과 사회주의 운동의 식민지적 길』, 『역사와 현실』 118, 2020.12., 336~337쪽, 참조.

65) 立石洋子, 『國民意識의 形成—ソ連國家의 發展と自國史像의 構築』, 『ロシア革命とソ連の世紀 第2卷 スターリニズムという文明』, 岩波書店, 2017, 93~94쪽.

66) 리처드 스타이크(김남섭 역), 『러시아의 민중문화 - 20세기 러시아의 연애와 사회』, 한울, 2008, 128쪽.

67) David L. Hoffmann, *Stalinist Values: The Cultural Norms of Soviet Modernity, 1917-1941*,

1935년 코민테른 제7회 대회는 반파시즘인민전선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채택했다.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은 대중의 민족 감정, 민족주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디미트로프(G. Dimitrov)는 파시즘이 대중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은 “민족 옹호자의 가면을 쓰고 손상된 민족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산주의자도 “인민대중의 민족심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문화’의 옹호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8)</sup> 코민테른은 각 민족에 고유한 급진-민주적 유산을 반영한 정책, 언어, 상징을 찾고자 한 것이다.<sup>69)</sup>

1930년대 초반 찾아온 조선 연구열은 반파시즘 인민전선론 혹은 반제 민족통일전선론적 성격을 가졌다.<sup>70)</sup> 안재홍은 조선학 운동이 정치적 약진이 불리한 시대의 ‘最善한 次善策’이라고 밝혔다.<sup>71)</sup> 사회주의자 백남운은 민족주의의 아성인 동아일보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1933년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를 출간하자, 10월 16일에 송진우, 백낙준, 여운형(呂運亨) 등이 발의한 출판 축하회가 열렸다. 다음날인 17일 동아일보는 사진까지 곁들여 출판 축하회 소식을 전하고, 백남운을 객원 논설위원으로 임명했다.<sup>72)</sup> 백남운은 학계와 문화계를 무대로 민족통일전선을 꾀했다. 1933년 6월에는 민족주의 계열 학자를 포함하여 조선경제학회를 창립했고,<sup>73)</sup> 1936년에는 전문학교, 학회, 신문사 등에 산재한 연구자를 묶어 ‘학술기간부대 양성’을 지향하는 ‘중앙아카데미’ 창설을 제안했다.<sup>74)</sup> 백남운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민족적 대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147.

68) 디미트로프,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을 추구하는 투쟁에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임무』(코민테른 제7회 대회 연설), G. M. 디미트로프(김대건 편역), 『통일전선 연구: 반파시즘 통일전선에 대하여』, 거름, 1987, 84·145쪽.

69) 케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황동하 역), 『코민테른: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서해문집, 2009, 208쪽.

70) 쓰루조노 유타카는 조선학 운동을 일종의 ‘통일전선적 학문 운동’으로 평가했다. 鶴園裕, 『近代朝鮮における国学の形成: 『朝鮮学』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5, 1997.10., 67쪽.

71) 樗山, 『朝鮮과 文化運動 - 卷頭言에 代함』, 『新朝鮮』 8, 1935.1., 2쪽.

72) 윤덕영, 『위당 정인보의 교유 관계와 교유의 배경: 백낙준·백남운·송진우와의 교유 관계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73, 2016.2., 52쪽.

73) 『朝鮮經濟學會 創立, 유지가 명월관에 회합하여 昨日에 創立總會 開催』, 『東亞日報』, 1933.6.10.

74) 白南雲(朝鮮經濟學會), 『學術基幹部隊의 養成, 中央아카데미 創設』, 『東亞日報』 1936.1.1.

립과 자본주의적 대립이 거의 서로 일치한다”고 민족통일전선의 근거를 밝혔다.<sup>75)</sup>

그러나 더 많은 사회주의자가 조선 연구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카프(KAPF) 서기장을 지낸 바 있는 임화(林和)는 프롤레타리아 문학가들이 “날카로운 역사과학의 메스가 아니라 낭만적 환상과 그 과학적인 외피만 보고 타류 속에 뛰어드는 것”을 비판했다. 타류는 ‘복고주의적 조류’를 가리켰다. 임화는 ‘조선학의 수립’, ‘조선 문학의 재건’, ‘조선적 현실의 분석’ 등 말뿐인 ‘과학적 환상’이 ‘비관주의와 패퇴 정신’을 은폐한다고 지적했다.<sup>76)</sup> ‘모스크바에서 조선으로’라는 풍조 비판에서는 안재홍이 “세계로부터 조선에 재귀하는 문화적 작업”<sup>77)</sup>을 논한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카프 맹원이자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을 지닌 김남천(金南天)은 “이순신의 백골을 땅 속에서 들추어서 그것을 혀끝으로 핥는 사람, 단군을 백두산 밀림 속에서 찾아다가 사당간에 모시는 사람, 정다산을 하수구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 등을 비판했다. 이순신, 단군, 정약용을 좇는 1930년대 조선 연구열을 비꼰 셈이다.<sup>78)</sup> 김남천은 안재홍을 비판하면서 “나치스가 괴테의 백주기 때에 연출한 태도와 이 땅의 ‘조선의 애인’들이 정다산을 기념하던 때에 폭로한 문화적 태도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sup>79)</sup>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 주류는 코민테른이 1935년 제7회 대회를 통해 반파시즘 인민전선론, 반제 민족통일전선론을 채택한 이후에도 민족주의자와 연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연대의 대상이 될 만한 건전한 민족부르주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 탓에

75) 白南雲, 『朝鮮經濟の現段階論』, 『改造』 1934.4., 69쪽.

76) 임화, 『역사적 반성에의 요망』, 『조선중앙일보』 1935.7.4.-16.(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360쪽).

77) 안재홍(安在鴻), 『文化建設私議(一) 世界로부터 朝鮮에!』, 『朝鮮日報』, 1935.6.6.

78) 김남천, 『이광수 전집 간행의 사회적 의의』(1935.9.5.-9.7.)(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127쪽).

79) 김남천,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 - 안재홍 씨에게 답함』(1935.10.18.~10.25.)(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131쪽).

공동 활동을 위한 합법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사회 민주주의, 민족개량주의를 사회 파시스트로 비판하는 1928년 코민테른 제6회 대회 이래의 계급 대 계급론을 여전히 견지했다.<sup>80)</sup>

프로핀테른 극동부에서 파견되어 비합법 공산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던 권영태(權榮台)는 경성제대 출신 조선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이재유(李載裕)와도 연결되어 있던 경성제대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麿之助) 교수와의 협의에서, ‘사회민주주의’, ‘민족개량주의’와 더불어 백남운의 『朝鮮社會經濟史』를 들어 조선인 사이에 “이상한 충동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sup>81)</sup> 백남운을 민족개량주의, 사민주의와 동렬에 놓고 비판한 것이다. 여기서 ‘이상한 충동’은 임화가 조선학 운동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낭만적 환상’이라는 말과 상통한다. 김남천은 안재홍을 ‘민족 파쇼의 태두’라고 비판했다.<sup>82)</sup> 조선 중앙일보 기자 서강백(徐康百) 역시 안재홍을 가리켜 “他國에 있어서의 사회 파시스트의 役割과 彷彿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sup>83)</sup>

김광진과 이청원은 1930년대 조선 연구와 민족통일전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김광진은 경성제대 조수를 지낸 인연으로 동년배의 경성제대 출신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가깝게 지냈다. 1931년 9월에는 유진오 등이 설립한 ‘朝鮮社會事情研究所’에 참여했고, 1934년에 ‘미야케(三宅) 교수 적화 운동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광진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과는 거리를 두었다. 조선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비판도 하지 않았다.<sup>84)</sup>

1935년에서 1938년까지 역사학자로 활약한 이청원은 1938년 5월 이후 다시 비합법 공산주의 활동에 종사하면서 『朝鮮革命論』을 집필했다.<sup>85)</sup> 이 글

80) 홍종욱, 「반파시즘 인민전선론과 사회주의 운동의 식민지적 길」, 358~371쪽, 참조.

81) 「三宅城大教授の赤化運動事件」, 『思想彙報』 2, 1935.3., 37쪽.

82) 김남천,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 - 안재홍 씨에게 답함」(1935.10.18.~10.25.)(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141쪽).

83) 徐康百, 「파시즘의 讚揚과 朝鮮型的 파시즘 -安在鴻氏의 『獨裁管見』을 批判(二)」, 『朝鮮中央日報』 1936.2.20.

84) 홍종욱,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294~295쪽.

85) 일본 관현은 이청원(李青垣), 송군찬(宋君瓚), 황병인(黃炳仁) 세 명의 공동 저작이라고 판단했다. 『朝鮮革命論』, 『思想彙報』 19, 1939.6.

에서는 “토착 부르주아 자신이 상업자본적, 고리대적, 흡혈귀적 존재로서 농촌에서 봉건적 제관계와 연결,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반제반봉건 투쟁에 나설 건전한 민족부르주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혁명으로 이를 권력 형태는 “당연히 소비에트적 형태의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라고 주장하여, 민족부르주아지와 민족통일전선 결성은 상정하지 않았다. 각주에서 민족통일전선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본문의 주지와 모순되는 혹덩어리’ 같은 것이었다.<sup>86)</sup>

이청원의 민족통일전선 부정은 조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의해 안받쳐졌다. 이청원은 『조선사회사독본』(1936) 서문에서는 ‘조선학’을 ‘유교 혼화적, 정책적, 반봉건적’이라고 부르고, “그 공식의 천재는 ‘단군’을 분식하고 그 전체적인 영웅은 ‘이순신’의 옷을 빌려 입고, 그 재간 있는 사람들은 ‘정다산’의 가면을 쓰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87)</sup> 1937년 11월 동아일보에 실은 글에서는 지금 “서구의 천지에서는 문화 전통의 옹호를 부르짖고” 있으나, 우리는 “부정하고 비판하고 청산하고 극복하여야만 할 문화 전통만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sup>88)</sup> 이청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민족주의자들이 비판적이었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 안재홍은 『신조선』을 편집하면서 이청원의 글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한다.<sup>89)</sup>

1930년대 초중반 많은 사회주의자가 민족주의자의 조선학 운동을 ‘조선적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사회주의자는 ‘과학적 조선 연구’를 내걸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했다.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조선사회경제사』를 펴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백남운은 정약용 기념사업에 참가하는 등 조선학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청원 역시 ‘과학적 조선

86) 서중석,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3, 158쪽.

87) 李清源, 『朝鮮社會史讀本』, 1~2쪽.

88) 李清源, 『朝鮮의 문화와 그傳統(二)(三)』, 『東亞日報』, 1937.11.3. · 5.

89) 蓮湖亭人, 『文化領域에 顯現되는 惡質의 諸流에 抗하여』, 『批判』 5-1/2, 1937.2., 112쪽. 조형열,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학술문화기관 구상과 “과학적(科學的) 조선학(朝鮮學)” 수립론』, 132쪽. 참조. ‘蓮湖亭人’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蓮湖亭’이 울진에 있는 정자인 집을 고려할 때 울진 출신의 사회주의자로 조선 연구에도 깊이 관여한 최익환(崔益翰)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청원은 1945년 5월 최익환의 딸과 결혼한다.

연구'를 내걸고 『조선사회사독본』을 펴냈지만, 조선에는 옹호할 만한 문화 전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남운이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며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새로운 주체 형성의 토대로 삼고자 했다면, 이청원에게 그런 발상은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상이한 태도로 드러났다.

## 2) 중일전쟁기 ‘조선’이라는 주체와 지식인의 공동전선

중일전쟁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1938년 3월 백남운은 연희전문 상과 동료인 이순탁(李順鐸), 노동규(盧東奎) 그리고 ‘경제연구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일제 관헌은 경제연구회 활동을 ‘인민전선전술을 방불’케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해 12월 백남운은 강의, 집필, 강연 등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연희전문학교도 그만두어야 했다. 1940년 7월 보석으로 출옥한 백남운은 그해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sup>90)</sup>

관헌 기록 가운데는 백남운이 남긴 『悔悟錄』(1938.11.)·『感想錄』(1939.5.)·『年頭所感』(1940.1.) 등 모두 세 편의 전향서가 확인된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사상범 통제시설인 아마다주쿠(大和塾)에 불려가는 등 고초를 겪지만, 이른바 전향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sup>91)</sup> 마치 못해 쓴 전향서 내용을 끝이끝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일제 관헌의 압력과 회유 앞에 내용을 수밖에 없었던 전향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으로써 백남운의 사상의 편린을 더듬어보고자 한다.<sup>92)</sup>

백남운은 1939년 5월 경성지방 법원 예심판사에게 제출한 『感想錄』에서, “현대의 논자로서 자본주의제의 폐해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나 광

90) 洪性謙, 「일제하 延專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會事件’」, 『연세경제연구』 1, 1994.9.

91) 洪宗郁, 「戰時期朝鮮における思想犯統制と大和塾」, 『韓國朝鮮文化研究』 16,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韓國朝鮮文化研究室, 2017.3., 참조.

92) 백남운의 전향서의 주요한 내용은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사이공간 SAI』 11, 2011.11.)에서 소개한 바 있다.



구(匡救)의 방법은 결코 공산사회 그것에 한정된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힌 뒤, ‘자본주의 경제기구의 붕괴론’에 대해서는 “최근의 통제경제의 조직화 등을 고찰하는 한 다소의 변경은 피할 수 없지만, 경제기구의 토대 자체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sup>93)</sup> 자본주의 반대라는 점에서 이전과 연속되나 공산주의 이외의 길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단절도 확인된다. 백남운은 「‘뉴딜’의 전망」(1935)에서 자본주의 ‘계획 경제’는 “자본주의 기구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sup>94)</sup> 자본주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인 판단이었다. 전향서의 서술은 좀 애매하지만, 자본주의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다. 통제나 수정만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확인된다.

백남운은 「感想錄」에서 자신의 한국사 연구를 돌아보며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는 “봉건제의 특수성을 강조한 점”에서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다르다고 자평했다. 이어 역사의 ‘특수성’ 및 ‘계약성’이 인정되는 한 “마르크스 역사이론 체계는 중대한 재비판이 기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조선 및 아시아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sup>95)</sup>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 서문 등에서 밝힌 문제의식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전향서의 서술이지만, 그저 압박과 회유의 결과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1934년 말부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서 활약하던 이청원은 1938년 5월경 다시 종적을 감췄다. 전시 체제가 관헌의 감시와 탄압이 강화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탓으로 짐작된다. 이후 이청원은 「조선혁명론」을 집필하는 등 비합법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1940년 5월에 일본 도쿄에서 체포되어 1944년 6월까지 감옥에 갇혔다. 이청원도 전향서를 제출했는데, 일본 관헌 기록에서 간접적이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청원은 다음과 같이 통제경제를 옹호했다. “총동원법령은 사유재산, 생

93) 白南雲, 「感想錄」(1939.5.30.), 『李順鏞外二名 治安維持法違反』(국사편찬위원회 소장), 2829쪽.

94) 白南雲, 「『뉴딜』의 展望(一)」, 『東亞日報』 1935.6.13.

95) 白南雲, 「感想錄」(1939.5.30.), 2826~2827쪽.

산, 분배, 배급 등에 대해, 또한 자유주의적 경제기구에 대해 하나의 커다란 제약을 부여하는 동시에, 한편에서 새로운 건설적 태도, 경제 도덕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균형화로 방향 지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내가 일찍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총동원법령 제11조의 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와 군부의 의지의 차이는, 내게 군부의 초(超)계급적 존재와 그 신체제에서 추진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었습니다.”<sup>96)</sup> 일본의 전시 통제경제가 자유경제를 제약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특히 재계와 갈등하며 신체제를 추진하는 군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또한, 한일 간의 민족 협화를 주장했다. 이청원은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지나(支那) 민족주의의 승인”을 밝힌 점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 조선 민족’도 “동양공동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이 공동체의 일 구성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청원은 일본인의 토지 독점, 조선인 의무교육 결여, 일본으로의 도항 규제 등을 열거한 뒤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아시아 민족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왜 이러한 차별이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별을 철폐하고 조선인에게 ‘문화와 빵’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협화적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었다.<sup>97)</sup>

1937년 7월 중일전쟁 개전 이래 일본은 파죽지세로 중국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1938년 가을 우한, 광둥을 점령한 뒤에도 중국 국민정부가 굴복하지 않자, 일본 정부는 화평을 통한 전쟁 종결을 모색하게 된다. 1938년 11월 일본 정부는 이른바 ‘동아신질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어, 중국의 민족주의를 인정한 위에 일본이 주도하고 만주국, 중국이 참여하는 일종의 연방제 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sup>98)</sup> 이후 일본에서는 동아협동체론, 동아연맹론 등이 크게 유행했다.

96) 『(十六)李靑垣事平昌秀吉の場合』, 『思想研究資料 特輯 第九十五号 左翼前歴者の転向問題に就て』, 司法省刑事局, 1943.8. 『社會問題資料叢書 第1輯』, 1972), 197쪽.

97) 『(十六)李靑垣事平昌秀吉の場合』, 200~203쪽.

98) 洪宗郁, 『戰時期朝鮮の転向者たち: 帝国/植民地の統合と亀裂』, 有志舎, 2011, 65쪽.

일본이 중국의 민족주의를 승인한 것을 평가하는 이청원의 주장은 명백하게 ‘동아신질서’ 구상을 의식한 것이다. 이청원은 이를 ‘동양공동체’라고 받아들인 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만주국, 중국 외에 조선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선일체라는 틀 안에 조선을 가두려는 일본의 의도를 넘어서는 주장이었다. 이청원은 내선일체를 ‘차별로부터의 탈출’<sup>99)</sup>을 위한 기회로 삼고, 나아가 조선을 ‘동양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고자 했다.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일본 관헌은 이청원의 이러한 태도를 놓고 “총동원법령의 중요성을 그 빈부의 균형화라는 면에서 강조하거나 재계와 군부를 비교해서 후자의 초(超)계급성 등을 운운하는 데서, 오히려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일단 계급적 입장으로 환원하여 판단하려는 습관(그것은 일종의 좌익적인 상식이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간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시동인이나 협화적 통일이라는 것이 온갖 차별을 무시한 평면적 절대 평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고 경계했다.<sup>100)</sup> 일본 관헌은 조선인 전향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른바 전향 좌파와 일본 관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남아 있었다.

김광진은 1939년 봄 보성전문학교를 그만두고 평양으로 낙향하여 회사 경영에 관계하다 해방을 맞았다. 학교를 떠난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1938년 백남운의 체포, 이청원의 잠적에서 보이듯, 중일전쟁기 식민지 조선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공공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일본 국내에서도 1938년 2월 인민전선사건으로 좌파 성향의 대학 교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김광진의 사직과 낙향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백남운, 이청원, 김광진은 모두 중일전쟁기 담론의 장에서 배제되었다. 백남운과 이청원은 전향서를 통해서만 발화할 수 있는

99) 미야타 세쓰코는 조선인이 내선일체 속에서 ‘차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측면을 보고자 한 사실에 주목해, 중일전쟁기 조선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宮田節子(李熒娘 역),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一潮閣, 1997, 166~174쪽.

100) 『(十六)李靑垣事平昌秀吉の場合』, 199·203쪽.

처지에 놓였다. 이청원의 전향 논리는 통제경제론과 민족협화론이었다. 백남운이 『感想錄』 말미에서 “기회가 허락된다면 『통제경제연구소』, 『동양문화협회』 등과 같은 기관을 창설하여 학문적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101)</sup> 흥미로운 것은 중일전쟁기 잡지나 신문에서 이청원의 전향서와 비슷한 논리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1939년 1월에 잡지 『三千里』는 특집 『동아협동체와 조선』을 꾸렸다. 필자는 김명식(金明植), 인정식(印貞植), 車載貞(차재정)인데, 모두 과거에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전향 좌파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동아협동체론에 대한 기대 속에 통제경제론과 민족협화론을 전개했다.<sup>102)</sup>

중일전쟁기 내선일체가 부르짖어지는 가운데 조선이라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역설이 벌어졌다. 조선 연구에 대해 부정적이던 임화는 중일전쟁기에 들어서자 1930년대의 ‘고유한 문화 고전과 전통에 대한 관심’을 ‘이식성과 국제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재평가했다.<sup>103)</sup> 임화는 1938년 가을 ‘學藝社’를 창립하고 1939년 1월부터 ‘朝鮮文庫’를 간행한다. 이전부터 조선 연구의 필요성을 주창한 김태준과 협력하여 〈춘향전〉, 〈청구영언(靑丘永言)〉 등의 고전 문헌과,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증보판, 김재철(金在喆)의 『조선연극사』 등 고전 관련 연구서를 조선문고로 출판했다.<sup>104)</sup>

임화는 1939년 가을부터 〈개설 신문학사〉를 집필하는데, 일찍이 백남운이 제시한 내재적 모순의 발전을 중시하는 역사상이 뼈대를 이뤘다.<sup>105)</sup> 먼저,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는 「신문학의 태반」의 ‘물질적 배경’이라는 항목에서 ‘자주적 근대화 조건의 결여’를 설명하면서, “백남운, 이청원, 김광진, 김태준, 고 하야카와 지로, 모리타니 가쓰미, 이우진 씨 등의 조선사 과정에 관한

101) 白南雲, 『感想錄』(1939.5.30.), 2840쪽.

102) 홍종욱 편,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69~107쪽.

103) 林和, 『教養과 朝鮮文壇』, 『人文評論』 1939.11.(인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인화문학예술전집 5: 평론 2』, 소명출판, 2009, 185쪽).

104) 장문석, 『출판기획자 임화와 학예사라는 문제들』, 『민족문학사연구』 41, 2009.12., 참조.

105) 임화가 신문학사를 집필한 의미와 백남운 등에게서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장문석, 『임화의 참고문헌: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 규명을 위한 관건(管見)』, 『관악어문연구』 34, 2009.12., 참조.

견해는 전연 상이하나 이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sup>106</sup>)고 밝혔다. 마르크스 역사학자들의 논의를 폭넓게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임화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봉건제의 변형으로 보는 백남운과 달리, 하야카와 지로와 라이할트(V. Reikhardt)를 인용하여 “아세아적 정체성은 역사과정 중 어느 임의의 지점에서 돌연히 배태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최초의 역사상 사회 구성인 원시사회의 붕괴의 비전형성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했다.<sup>107</sup>) 라이할트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미발달한 노예사회이자, 원시 공산사회와 고전적 노예제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sup>108</sup>) 다만 백남운은 1937년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펴낼 무렵에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변화를 보였고, 해방 후인 1946년에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원시 공산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이행하는 ‘초(初)계급사회’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sup>109</sup>) 임화와 백남운의 역사 인식이 화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임화는 “역사는, 더구나 근대사회는 결코 한 국가나 지방의 폐쇄적 독존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과 화폐에 의한 모든 지방의 세계화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조선이 다른 동양의 나라들과 같이 ‘이식자본주의’의 길을 밟았다고 분석했다.<sup>110</sup>) ‘이식자본주의’는 ‘세계사적 규모에서 현대 자본주의’<sup>111</sup>)의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백남운이 사용한 개념이다. 동시에 임화는 “이조 말 사회는 비록 자주적으로 근대화될 만한 기본 조건이 결여되었었다 할지라도 북미나 호주처럼 근대적 생산양식과 접촉하자마자 전 사회 기구가 허물어져 버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근대적 생산양식의 맹아’에 주목했다.<sup>112</sup>) 김광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대한 백남운의 비판을 떠올리

106) 『개설 신문학사』(1939.9.~1941.4.)(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22쪽).

107) 『개설 신문학사』(1939.9.~1941.4.), 25쪽.

108) ヴェー・ライハルト(永住道雄 譯), 『前資本主義社會經濟史論』, 叢文閣, 1936; 金在濠, 『亞細亞의 生産様式問題의 批判: 쏘베트에 있어서의 論爭을 中心으로』, 『批判』 5-1/2, 1937.2., 57쪽; 洪淳權, 『193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 44쪽.

109) 백남운, 『조선 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 『民族文化』 1, 1946.7.(하일식 편, 『백남운 전집 4: 彙編』, 136쪽).

110) 『개설 신문학사』(1939.9.~1941.4.), 26쪽.

111) 백남운(하일식 역), 『백남운 전집 1: 朝鮮社會經濟史』, 19쪽.

게 된다. ‘맹야’라는 표현 역시 내재적 모순의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백남운이 즐겨 쓰던 개념이다.

이어지는 『신문학의 태반』의 ‘정신적 준비’라는 항목에서는 “금압 하의 ‘실학’”을 설명하면서,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 서문에서 “근세 조선사상의 유형원, 이익, 이수광, 정약용, 서유구, 박지원 등 말하자면 ‘현실학파’라고도 칭할 우수한 학자가 배출하여 우리의 경제학적 영역에 선물로 남겨준 업적은 결코 적지 않다.”는 부분을 직접 인용했다.<sup>113)</sup> 임화는 백남운의 주장을 ‘실학의 가치를 경제학의 측면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등을 인용하면서 실학의 의의를 문화와 정신 일반으로 확대했다. 임화는 실학에 대해 “아직 그 시대의 왕자일 수는 없으나 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엄연히 성장하고 있는 새 시대의 맹야를 배경으로 하여 그들은 낡은 정신적 유산 위에다 새 신념을 심어 갔던 것”이라고 평가했다.<sup>114)</sup>

임화는 “자기에의 회귀의 귀착점이 곧 세계로의 전개 of 출발점”<sup>115)</sup>이라면서 자신의 문화 전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갑오 이후 근대에 우리 문화가 조선으로 회귀한 데에서보다 더 많이 세계를 향한 전개 과정에 영향받고 전혀 모방문화, 이식문화를 만든 데 그쳤음은 무슨 까닭인가?”<sup>116)</sup>라고 질문한 뒤, “결코 우리 문화 전통이나 유산이 저질의 것이기 때문이 아냐”라 이를 “새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조하고 변혁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자 “우리의 자주정신이 미약하고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sup>117)</sup> 중일전쟁기 조선문고 기획과 신문학사 집필 등 임화의 실천은 바로 ‘자주정신’에 입각해 전통문화를 새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조’하고 ‘변혁’하는 작업이었던 셈이다.

임화는 신문학사의 방법론을 정리한 글에서 “신문학사란 이식문화의 역

112) 『개설 신문학사』(1939.9.~1941.4.), 42~43쪽.

113) 같은 글, 48쪽.

114) 같은 글, 49쪽.

115) 같은 글, 56쪽.

116) 같은 글, 56쪽.

117) 같은 글, 57쪽.

사”라고 선언했다.<sup>118)</sup> 임화의 이식문학론은 ‘현해탄 콤플렉스’의 발로이자, 우리 문화에 대한 비하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sup>119)</sup> 그러나 임화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대적 생산양식의 맹아’에 주목했다. 또한 ‘이식자본주의’ 성립은 ‘상업과 화폐에 의한 모든 지방의 세계화’, 즉 근대사회의 필연적 속성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 이식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정립한 백남운은, 자본주의라는 세계사적 보편성이 식민지라는 특수성을 통해 관철되는 양상을 포착하고, 이를 넘어 “지구상의 사회평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임화 역시 전통문화를 새 문화로 개조, 변혁해 가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임화의 이식문학론과 백남운의 이식자본주의론은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고 그 극복을 꾀하려는 모색이었다.

역시 카프 맹원 출신으로 임화와 쌍벽을 이룬 비평가이자 소설가였던 김남천도 중일전쟁기 조선의 현실에 착목했다. 김남천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화계를 강타한 아시아적 특수성, 조선적 특수성의 문제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피고자 했다. 김남천은 장편 소설 『대하』(1939)의 창작 과정을 설명하면서, 참고한 서적으로서 “인정식 씨 저 『조선농촌기구의 분석』, 이청원 씨 저 『조선역사독본』, 동 씨 저 『조선독본』의 일부분, 백남운 씨 저 『조선사회경제사』의 일부분, 성천읍지 두 권”을 열거했다.<sup>120)</sup>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의 조선 연구가 중일전쟁기 문학자의 조선이라는 주체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했음을 엿볼 수 있다.

1938년 10월 『여유당전서』가 모두 76책의 거질로 완간되었다. 신문에 실린 여유당전서 출간기념회 발기인을 보면 윤치호, 김성수 등 조선인 명망가와 더불어 문일평, 현상윤 등 조선학 운동을 이끈 이들, 그리고 진단학회 이병도(李丙燾)의 이름도 보인다. 주인공인 안재홍, 정인보는 축하를 받는 입장이라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여성(李如星), 김태준 등 사회주의자도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 꼭 있어야 할 사람인 백남운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백남운은

118) 임화, 『신문학사의 방법』(1940.1.)(김윤식, 『임화와 신남철: 경성제대와 신문학사의 관련 양상』, 역락, 2011, 420쪽).

119) 김윤식, 『임화와 신남철: 경성제대와 신문학사의 관련 양상』, 역락, 2011, 113~127쪽.

120) 김남천, 『작품의 제작과정』, 『조광』 44, 1939.6.(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499쪽).

그해 3월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다. 그 대신이랄 것은 없지만, 경성제대 교원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총독부 통역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중일전쟁기 식민지 조선의 문화계 모습을 잘 보여준다.<sup>121)</sup>

중일전쟁기 내선일체의 위협 속에 조선이라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여유당전서가 완간되었고, 임화와 김태준은 함께 조선문고를 기획했다. 신문과 잡지에는 통제경제와 민족협화를 통해 일본 제국 내에서 조선의 지위를 높이려는 전향 좌파의 담론이 넘쳐났다. 중일전쟁기 조선이라는 주체를 둘러싼 담론과 실천은 굴절된 형태로나마 1930년대 중반 조선 연구의 문제 의식을 계승했다.

해방 후 임화는 중일전쟁기 문학을 되돌아보며 조선인 사이에 ‘조선어’, ‘예술성’, ‘합리정신’을 지키기 위한 ‘공동전선’이 존재했다고 회고했다.<sup>122)</sup> 뒤늦게 찾아온 민족통일전선이었다. 1936년 신남철은 한 해 전 파리에서 반파시즘을 내걸고 열린 ‘문화옹호 국제작가대회’를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광범한 ‘공동전선’으로 평가하고, “문화의 옹호는 바야흐로 이성을 박탈당하려는 자의 군센 부르짖음”이라고 적은 바 있다.<sup>123)</sup> 임화가 말한 공동전선은 인민전선의 문제의식을 이었지만, 전향이라는 문턱을 넘음으로써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전선이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 서로 다른 입장에 섰던 임화와 백남운은 중일전쟁기에 비로소 조선이라는 주체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가 됐지만, 같이 활동할 공간은 이미 잃은 뒤였다. 조선인의 공동전선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배제된 뒤에야 허용되었다.

1940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다. 이듬해 4월에는 잡지 『인문평론』과 『문장』이 폐간되었다. 임화가 말한 조선 지식인의 공동전선의 무

121) 『與猶堂全書 完刊記念祝賀』, 『東亞日報』 1938.12.13.;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 387~388쪽.

122) 임화,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1946(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502쪽).

123) 신남철, 『신문화 건설의 길』, 『사해공론』 1936.5.(정중현 편, 『신남철 문장선집 I: 식민지 시기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446쪽); 조형열,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학술문화기관 구상과 “과학적(科學的) 조선학(朝鮮學)” 수립론』, 137쪽.



대는 사라졌다. 일제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제국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4. 〈보편=주체〉를 향한 단선적 발전단계론 확립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백남운은 조선학술원을 창립했다. 조선 학술원은 좌우파 학자를 망라한 통일전선이었다. 식민지기 품었던 중앙이카 데미 건설 구상이 비로소 현실화된 셈이다.<sup>124)</sup> 백남운은 독립동맹 경성특별 위원회 위원장, 신민당 당수로서 정치의 일선에도 섰다. 백남운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내걸고 폭넓은 민족통일전선을 주창하여, 박헌영(朴憲永)의 조선공산당과 대립했다. 자신의 노선을 밝힌 「조선 민족의 진로」(1946.4.)라는 글에는 「조선 경제의 현단계 재론」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민족적 대립과 자본주의적 대립이 일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 경제의 현단계론」(1934)를 계승한 글임을 알 수 있다.<sup>125)</sup>

백남운은 1946년 7월 「조선 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원시 씨족 사회, 공산성 초(初)계급사회, 아세아성 노예제사회, 아세아성 봉건사회, 봉건성 자본주의 사회, 연합성 민주주의 사회”<sup>126)</sup>로 이어지는 역사상을 제시했다. 식민지기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봉건제의 변형으로 본 것과 달리, ‘아세아적 단계’를 ‘촌락공산(농업공산)성을 보유한 초(初)계급사회’로 규정하고, 이어지는 노예제, 봉건제 사회에 ‘아세아적 침체성의 사적 모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sup>127)</sup> 1937년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아시아적 정체성의 ‘사적 모반’을 언급한 바 있으나, 아시아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심화하여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의 이행기로 보는 하야카와 지로

124) 김용섭,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2005, 18~46쪽, 참조.

125) 洪宗郁, 「白南雲—普遍としての〈民族=主体〉—」, 116~119쪽, 참조.

126) 백남운, 「조선 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 『民族文化』 1, 1946.7.(하일식 편, 『백남운 전집 4: 彙編』), 137쪽.

127) 같은 글, 136쪽.

나 라이할트의 역사상에 접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에서 해방을 맞은 김광진은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에 참가했다. 김광진은 1946년 1월 서울에 내려와 백남운과 만나 남측 학자 유치를 협의하는 등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미군 노획문서에 전하는 1947년 1월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235명 명단을 보면 김광진의 임명일이 가장 앞선다.<sup>128)</sup> 김광진은 1948년 8월 『이조 말기의 화폐유통과 일제의 강탈적 화폐정리』(『歷史諸問題』 2)를 발표한다. 1933년 『보전학회논집』 제1집에 일문으로 발표한 논문을 ‘보충, 가필’해 실은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적 사회』의 자본주의 침입에 따른 붕괴과정”이라고 썼던 부분을 “자본주의의 분해작용으로 말미암아 이조 봉건사회의 붕괴과정”(47쪽)으로 고치는 등, 곳곳에서 ‘아시아’를 ‘봉건’으로 바꿔썼다. 정체성론의 역사상은 유지하면서도 봉건제의 존재를 경시했던 기존 서술에 스스로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sup>129)</sup>

해방 직후 이청원은 장안파 공산당에 참여했다. 장안파 공산당은 직접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해,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내건 박헌영 주도의 재건파 공산당에 의해 트로츠키주의자로 비판받기도 했다. 이후 이청원은 북한 정권에 참여하여 1947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한 조선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sup>130)</sup> 1947년에 이청원이 집필한 『조선근대사연구』는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건국 초기 북한 역사학을 대표하는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청원은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기관지인 『력사과학』 책임편집위원을 맡는 등 북한 역사학계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활약했다. 다만,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이청원은 연안파 지도자인 최창익(崔昌益) 일파로 몰렸다.

이청원은 1955년 가을에 『력사과학』 제9호와 제10호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같은 해 이를 엮어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

128) 홍중욱,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303~304쪽.

129) 같은 글, 309쪽.

130) 홍중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77-3, 2020.8., 15쪽.

한 투쟁』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했다. 식민지기에 민족부르주아지를 상대로 고립정책을 폈다는 이청원의 서술에 대해서는 교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일성의 조국광복회에서 보듯 민족부르주아지와 연대하는 민족통일전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애국적 역량을 모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었다. 1957년 이후 이청원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민족통일전선을 둘러싼 식민지기 이래의 대립이 이청원의 숙청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운 셈이다.<sup>131)</sup>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이청원의 숙청을 놓고 “구래의 연구와 공화국 민중에게 필요한 자국사 상 사이에 어긋남이 생긴 것”<sup>132)</sup>이라고 분석했다.

1955년 북한 학계에서는 노예제 유무 논쟁이 일어났다. 김광진은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 과정-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1955)<sup>133)</sup>를 통해 조선은 원시공산제에서 봉건제로 직접 이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노예제 결여론이다. 이에 대해 도유호(都有浩)는 『조선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시대는 없었는가』(1956)<sup>134)</sup>에서 조선에도 노예제가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노예제 존재 유무를 놓고 시작된 논쟁이 삼국 시대 사회 성격을 묻는 논쟁으로 진화되면서, 김광진, 김석형(金錫亨)의 봉건제론과 도유호, 임건상(林建相)의 노예제론이 대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백남운도 토론회에 출석하여 지론인 노예제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식민지기 김광진과 백남운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재연된 셈이다.<sup>135)</sup>

논쟁은 삼국시대를 봉건제로, 그보다 앞선 고조선 시대를 노예제로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결착되었다. 한국사에 노예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민지기 이래 김광진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1963년 리지린이 『고조선 연구』를 통해, 고조선은 아시아적 공동체가 파괴되었으나 총체적 노예제의 유체가 강인

131) 같은 글, 37~42쪽.

132) 梶村秀樹, 『日本帝國主義の問題』(1977), 『梶村秀樹著作集 第2卷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1993, 318쪽.

133) 김광진,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 과정-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력사과학』 1955-8/1955-9.

134) 도유호, 『조선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시대는 없었는가』, 『력사과학』 1956-3.

135) 『백남운 원사의 토론요지』, 『삼국 시기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홍종욱, 『보성전문대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310~311쪽.

하게 잔존한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하여, 이것이 정설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63~65년에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 동북지방 유적 조사 후, 고조선을 순장제가 보편적으로 실시된 사회로 보는 견해가 표명되면서, 고조선은 전형적 생산노예제 사회로서 재규정되기에 이른다.<sup>136)</sup> 순장을 노예제 사회의 근거로 보는 것은 백남운과 귀모뢰의 설이다. 북한의 노예제 인식은 백남운의 역사상에 비추어 본다면 1946년에 주장한 ‘아세아성 노예제 사회’를 거슬러 1933년 『조선사회경제사』 단계의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론으로 회귀한 셈이다.

김광진은 조선 후기 실학 연구로 관심을 옮겨, 1962년에는 『정다산의 경제사상』을 펴냈다. 김광진은 정약용을 ‘반봉건적 혁명 사상가’<sup>137)</sup> 혹은 ‘탁월한 경제 사상가이며 애국적인 정치 활동가’<sup>138)</sup>라고 높게 평가했다. 1963년에 열린 토론회 기사에 따르면 “계몽사상의 발생을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실학사상에서 찾으려”는 주장을 처음 한 이가 바로 김광진이라고 한다.<sup>139)</sup> 정약용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 연구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김광진의 정약용 및 실학 평가는 1930년대 백남운을 비롯한 조선학 운동과 중일전쟁기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의 인식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1973년 김광진은 정영술, 손전후와 같이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을 펴냈다. 이 책은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맹아를 철저히 규명하였는데, 머리말에서는 ‘아세아적 정체론’, ‘자본주의 이식론’을 견결하게 배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적 정체성론을 넘어 이식자본주의론마저 배제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세계사적 보편성이 기계적으로 강조된 나머지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려던 문제의식마저 부정된 것이다.

북한 역사학은 ‘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을 이념으로 삼았다.<sup>140)</sup>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는 근대 역사학의 역사주의 전통 위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계급적 관점을 더한 것이다. 북한 역사학은 단선적 발전단계론에 입

136) 송호정, 「전근대사의 시대구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1』, 한길사, 1990, 35쪽.

137) 김광진, 「토지 문제에 대한 정 다산의 사상」 『경제연구』 1961-4, 1961, 41쪽.

138) 김광진, 『정 다산의 경제 사상』, 과학원출판사, 1962.8, 291쪽.

139) 『학계소식: 우리 나라 계몽 운동의 시기 구분 문제에 대한 학술 토론회』 『경제연구』 1963-2, 64쪽.

140) 홍종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77-3, 2020.8., 참조.

각하여 민족사를 체계화함으로써 식민지, 주변부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이 관철됨을 보이고자 했다.

식민지기이래 조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 부정적이고 민족부르주아지와 연대에 소극적이던 이청원은 정치적 갈등에 휩쓸려 숙청을 당했다. 김광진은 아시아적 특수성에 주목하던 자신의 설을 버리고 단선적 발전단계론에 맞춰 실학의 근대성을 평가하고 자본주의 맹아를 강조하는 변화를 보였다. 백남운은 1960년 전후 벌어진 논쟁에서 식민지기이래 주장해온 노예제 사회론을 인정받게 된다. 그것도 1937년 이후의 아시아적 특수성을 고려한 아시아적 노예제가 아닌 1933년 단계의 전형적 노예제 사회론이었다. 1930년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했던 백남운과 귀모뤄가 해방 후 북한과 신중국에서 나란히 과학원장에 오른 사실은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궤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up>141)</sup> 세계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의 조화를 꾀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여정은, 북한에 이르러 〈보편=주체〉의 확립이라는 시무(時務)에 쫓겨 단선적 발전단계론의 강조로 귀착되었다.

141) 홍종욱, 「반(反)식민주의 역사학에서 반(反)역사학으로 - 동아시아의 '전후(戰後)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 서술」, 『역사문제연구』 31, 2014.4., 74쪽.

## ■ 참고문헌

- 宮田節子(李煥娘 역),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一潮閣, 1997.
- 김용섭,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2005.
- 김윤식, 『임화와 신남철: 경성제대와 신문학사의 관련 양상』, 역락, 2011.
- 리처드 스타이츠(김남철 역), 『러시아의 민중문화 - 20세기 러시아의 연애와 사회 -』, 한울, 2008.
- 방기중, 『한국 근현대 사상사 연구: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 경제 사상』, 역사비평사, 1992.
- 서중석,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3.
- 鹽澤君夫·福富正實(편집부 역),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지양사, 1984.
-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입계들: 식민지 조선 담론장에서의 전통·세계·주체』, 푸른역사, 2009.
- 케빈 맥도모트·제레미 애그뉴(황동하 역), 『코민테른: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서해문집, 2009쪽.
- 洪宗郁,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帝国/植民地の統合と亀裂』, 有志舎, 2011.
- 湯淺起男, 『『東洋的専制主義』論の今日性: 還ってきたウイットフォーゲル』, 新評論, 2007.
- David L. Hoffmann, *Stalinist Values: The Cultural Norms of Soviet Modernity, 1917-1941*,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1966.8.
- 박형진,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 『역사문제연구』 38, 2017.10.
- 윤덕영, 『위당 정인보의 교유 관계와 교유의 배경: 백낙준·백남운·송진우와의 교유 관계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73, 2016.2.
- 이태훈, 『일제하 백남운의 부르주아 경제사학 비판과 맑스주의 역사인식 형성과정』, 『한국사상사학』 64, 2020.4.
- 장문석, 『출판기획자 임화와 학예사라는 문제틀』, 『민족문화사연구』 41, 2009.12.
- \_\_\_\_\_, 『임화의 참고문헌: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 규명을 위한 관건(管見)』, 『관악어문연구』 34, 2009.12.
- \_\_\_\_\_, 『식민지 출판과 양반: 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민족문화연구』 55, 2014.8.
- 조형열,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학술문화기관 구상과 “과학적(科學的) 조선학(朝鮮學)” 수립론』, 『역사학연구』 61, 2016.2.
- \_\_\_\_\_, 『1930년대 조선 ‘역사과학’ 계열의 보편특수성 인식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수용 양상』, 『전북사학』 49, 2016.10.
- 조호연, 『스탈린 시대의 역사학』, 『인문논총』 1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12.
- 한기형, 『배제된 전통론과 조선인식의 당대성: 『개벽』과 1920년대 식민지 민간학술의 일단』, 『상허학보』 36, 2012.10.
- 洪性讓, 『일제하 延專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會事件’』, 『연세경제연구』 1, 1994.9.

- 洪淳權, 『193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 『東亞論叢』 31, 1994.2.
-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11, 2011.11.
- \_\_\_\_\_, 『반(反)식민주의 역사학에서 반(反)역사학으로 - 동아시아의 '전후(戰後)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 서술』, 『역사문제연구』 31, 2014.4.
- \_\_\_\_\_,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歷史學報』 232, 2016.12.
- \_\_\_\_\_,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77-3, 2020.8.
- \_\_\_\_\_, 『반파시즘 인민전선론과 사회주의 운동의 식민지적 길』, 『역사와 현실』 118, 2020.12.
- 梶村秀樹, 『日本帝國主義の問題』(1977), 『梶村秀樹著作集 第2卷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1993.
- 菊地一隆, 『中国トロツキー派の生成、動態、及びその主張: 一九二七年から三四年を中心に』, 『史林』 79-2, 1996.3.
- 立石洋子, 『国民意識の形成—ソ連國家の發展と自國史像の構築』, 『ロシア革命とソ連の世紀 第2卷 スターリニズムという文明』, 岩波書店, 2017.
- 田中聡, 『転機としての『日本歴史教程』』, 磯前順一 & ハリー・D.ハルトゥーニアン編, 『マルクス主義という経験: 1930-40年代日本の歴史学』, 青木書店, 2008.
- 鶴園裕, 『近代朝鮮における国学の形成: 『朝鮮学』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5, 1997.10.
- 広瀬貞三, 『李清源の政治活動と朝鮮史研究』,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7, 2004.3.
- 洪宗郁, 『白南雲—普遍としての<民族=主体>—』, 趙景達 외 편,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4: 戦争と向き合って』, 有志舎, 2014.
- \_\_\_\_\_, 『戦時期朝鮮における思想犯統制と大和塾』, 『韓国朝鮮文化研究』 16,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韓国朝鮮文化研究室, 2017.3.

## Asian Perception and Korean Studies of Marxist Historiography in the 1930s

Hong, Jong-wook\*

The Marxist historiography of colonial Korea sought to harmonize world history universality with Asiatic specificity. Baek Namun emphasized the immanent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and sought to use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new subjects. Baek Namun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nationalist Joseonhak(Korean studies) movement. It can be seen as a kind of national unification front. On the other hand, Lee Cheongwon, who was pessimistic about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denied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 unification front.

Interest in the subject of Korea exploded amid the threat of naeseon-ilche(the unity of Japan and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period. A common front was formed between intellectuals to protect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Marxist historians were already excluded, but their research was inherited by others. Upon liberation, Marxist historiography took on the task of establishing the universal subject of Korea. Marxist historiography, which had maintained a tense relationship between world history universality and Asiatic specificity, came to North Korea with an emphasis on the linear development stage theory.

**Key words** : Joseon-hak(Korean studies) Movement, National Unification Front,  
World History Universality, Asiatic Specificity, Im Hwa

논문투고일 : 2021년 4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5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5월 28일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